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 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Children's Self-evalu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 보 가
강사 손 낙 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Prof. : Choi, Bo-Ga
Lecturer : Son, Nak-Ju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self-evaluation and the home environment which included the family's socio-economic status, parent's achieving pressure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home influenced on the parent's achieving pressure,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evaluation, but didn't influence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Parent's achieving pressur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and influenced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but did not influence children's self-evaluation.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influenced children's self-evaluation, but did not influence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directly. Children's self-evaluation had the strongest direct impact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This was found to be a mediating factor between home environmental factor and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I. 서론

부정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의 극단적인 형태인 학

습된 무력감은 아동의 학습과정과 성장발달과업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죽음에 까지 도달하게 한다(신기명, 1992). 그러나 학습된 무력

* 본 논문은 96년도 경북대학교 공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감은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며 치유가 불가능한 특성은 아니므로 실생활 장면에서 용이하게 진단하여 대처한다면 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송명자, 1995). 특히 결혼환경 때문에 자신이 지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아동들의 경우,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된 무력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동이 환경에서 행동과 자극변화 사이의 유관성을 일관성 있게 지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점이다(Seligman, 1973). 아동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각은 경험으로부터 오며 경험은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아동이 접하는 환경은 크게 가정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이며 가정환경에서는 부모, 학교환경에서는 교사, 사회환경에서는 또래가 각각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교육정도, 수입 및 재산 정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으나 근래에는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요구나 압력, 가족 구성원의 역할기대 및 역할지각 등과 같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리적 과정환경중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분위기 및 가정문제등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Sakano, 1989), 무력감 형성의 외적 조건으로는 아동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저해하는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애정결핍등이며 내적 조건은 아동의 과거 경험, 내향적 성격, 사회화 부족, 목표상실 등이다(신기명, 1992). 따라서 무력감 형성의 외적조건인 자율성을 저해하는 가정환경은 부모의 성취압력으로 그리고 부모의 애정결핍은 거부로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김기정, 1984; 김경옥, 1992)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비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연자, 1995).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격

과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자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환경이나 주위 인물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게 하여 무력감을 갖게 된다고 PAR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에서는 밝히고 있다(Rohner, 1986). 이러한 통제불가능성은 세상사나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불가능으로 일반화되어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는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심리적 현상과 유사하다(김성일, 1993).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거부는 자녀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중에서도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을 더 잘 예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ichman, Miller, & Levine, 1992).

여러 연구들(곽용, 1986; 류연자, 1995; Rohner, Han & Rohner, 1980)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인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낮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성취, 포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예언해 주는 요인으로 환경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중요하므로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환경의 영향은 아동의 개인내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까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학업성취(정수자, 1995), 성차(Beecher, 1984)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내외통제성(Aloyo, 1991), 지능(Winfield & Rourke, 1991), 연령(Rholes, Blackwell, Jordan & Walters, 1980) 그리고 자아개념(김선례, 1995; Aloyo, 1991)등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 학습된 무력감과 아동의 자아개념은 서로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평가, 자아가치감 등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신의 가치에 대

한 평가적 신념으로써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한 수용이나 거부, 성취압력과 같은 심리적인 경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아동이 미래의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발휘하는데 그 기초가 된다(Venard, 1993). 따라서 아동의 자아평가는 학습된 무력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가정환경과 자아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습된 무력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환경 맥락에서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변인들과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외적 요인인 가정환경이 아동 내적 요인인 자아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있어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아평가 및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학습된 무력감 이론

Seligman, Maier 및 Geer(1968)등이 개를 실험대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혐오사상을 반복하여 제시하였을 때, 그 개는 회피가 가능한 혐오상황에 직면했

을 때조차 회피행동을 시도하지 않고 무력하게 되었다. 즉 혐오사상을 계속하여 경험한 결과, 자기에 게 닦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통제가능한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 한다.

학습된 무력감 현상은 동물실험에서 뿐만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동기의 감소와 새로운 학습의 방해라는 일반화된 반응 양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즉 인간의 무력감에는 반응과 결과간의 비수반성(non-contingency)뿐만 아니라 통제불능(uncontrollability)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나 해석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신기명, 1992). 이에 Abramson, Garber 및 Seligman(1980) 등은 인간의 학습된 무력감에서는 혐오적 사상 그 자체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인간의 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학습된 무력감의 수정모형(Reformulated Learned Helplessness Theory)을 제안하였다. 학습된 무력감의 수정모형에서는 실패 또는 비수반성에 대한 귀인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된 무력감의 연구(Burhans & Dweck, 1995)는 주로 성취상황에서 실패의 귀인에 관한 것이었다.

학습된 무력감 증상과 우울증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부인할 증거는 아직 없으며 우울증을 무력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학습된 무력감의 연구는 우울증의 실험실 모델로 제시되어 왔으며 학습된 무력감이론에 기초한 우울증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 이론이 검증가능하며, 결과가 지지적이며, 우울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를 하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 수정모형을 기초로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가정환경과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가정의 사회화 경험 즉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에 빈번하고 지속적인 비수반적(non-contingent)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다(Homan, 1990). 이처럼 자극에 대하여 통제력을 발휘 할 수 없는 비수반적환경에서 양육된 아동은 실험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학습된 무력감과 유사한 인지적, 동기적, 정의적 결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성취압력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을 중심으로한 가정환경과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습된 무력감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아동기 우울성향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김용수, 1991; Lefkowitz & Tesiny, 1985). 우울집단 아동들의 가정환경이 정상 집단 아동의 가정환경보다 열악하고, 특히 아버지의 직업과 부모의 교육수준(Lefkowitz & Tesiny, 1984), 가족의 수입(Lefkowitz, Tesiny & Gordon, 1980) 등이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또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심리적 과정 환경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된 무력감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교육적 관심,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 하나의 독립적인 양육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학업성적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여러 가지 기대나 요구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탁경문, 1992).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성격적 특성은 다양하다. 즉 아동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안,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김경옥, 1992; 류연자, 1995),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 학습된 무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novan & Leavitt, 1985).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습된 무력감

부모의 양육행동은 가정환경의 일부이며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 양육행동의 일반적인 차원은 Symonds(1939)의 연구 이래 상세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과 통제의 두차원으로 구성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Shaffer, 1993). 그러나 6-12세 사이의 아동은 부모의 온정과 통제를 유사하게 지각하며, 통제차원은 아동의 행동을 예언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연, 1987). Rohner(1986)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아동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수용-거부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개념적으로 온정차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온정차원 중 수용요인이 부모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며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발달수준 및 사회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송철희, 1994). 반면에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Crockenberg & Litman, 1990), 자신의 행동으로는 부모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불가능성을 경험하게 하였다(김성일, 1993). 특히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이 크며 어머니의 거부는 정상집단보다 우울집단의 아동들 사이에서 더 우세하였으며(김용수, 1991)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낙주와 최보가, 1996).

3.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

아동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이나 거부와 같은 사회적인 경험 및 계속적인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과 관련되는 데, 한 두 번의 실패에서는 그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실패가 거듭되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 탓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자아관이 형성된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관은 아동에게 계속하여 실패를 유도하고 결국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처럼 개인이 반복되는 실패나 불만을 경험하면 장래성공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고, 노력과 성공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환경에 대처하는 효능감을 상실하게 된다(김선례, 1995). 이런 결과는 개인의 계속된 실패경험이 자신의 가치 및 능력을 평가절하시키고 따라서 주어진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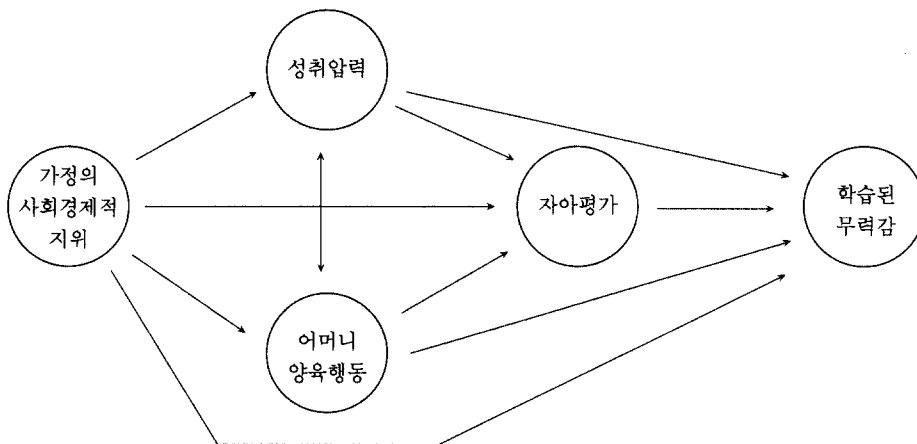
4. 모형의 구성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아평가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

동의 자아평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서로 상관이 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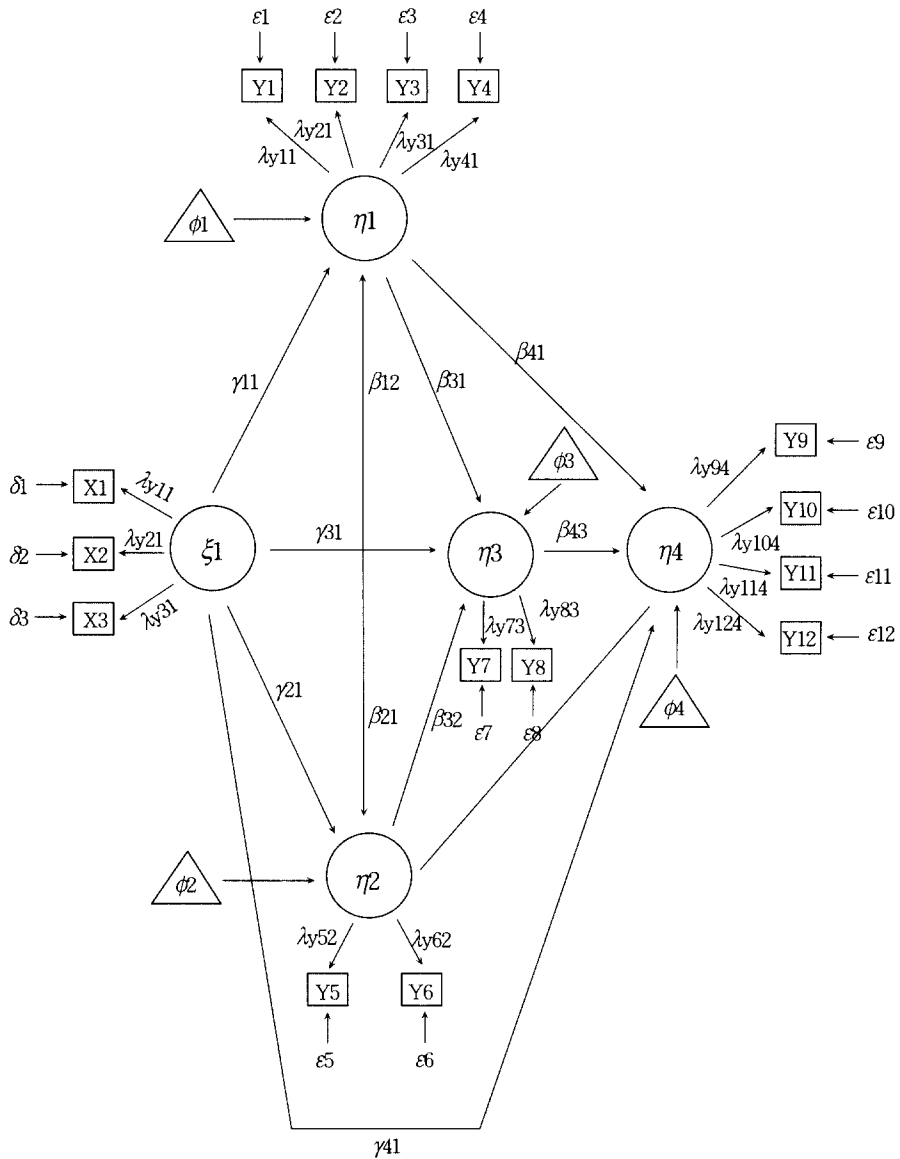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설정을 위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관련된 변인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외생변인으로 부모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평가는 내생변인으로 간주하였으며 각 측정변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외생변인: X1=어머니의 학력
X2=아버지의 학력
X3=아버지의 직업
- 내생변인: Y1=학업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Y2=학업성적에 대한 압력
Y3=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포부
Y4=학업성적을 위한 강화체제
Y5=어머니의 양육행동(수용 요인)
Y6=어머니의 양육행동(거부 요인)
Y7=아동의 자아평가(긍정적 자아평가)
Y8=아동의 자아평가(부정적 자아평가)
Y9=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지속성결여



<그림 1>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가설적인과모형

요인
 Y10=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자신감결여
 요인)
 Y11=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수동성
 요인)
 Y12=아동의 학습된 무력감(통제력결여
 요인)
 이상에서 살펴 본 이론구조와 측정구조와의 관계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설모형의 이론구조와 측정구조와의 관계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51명이었으며 남아가 249명(55%), 여아가 202명(45%)이었고 5학년은 251명(56%), 6학년은 200명(44%)이며 연령은 9세(1%), 10세(36%), 11세(48%), 12세(15%)이다. 아버지의 연령은 36-45세(82%),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74%)가 대부분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상(82%),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74%)가 대부분이었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00명을 무선표집하여 1996년 6월12일부터 6월19일 사이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74부였고 이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부실기재한 것, 편부모 자녀의 자료를 제외한 총 45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Cronbach α 를 산출했으며 각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C-LISREL 8.01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성취압력척도

성취압력 척도는 이남기(1995)의 "성취압력척도"와 김기정(1984)의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윤영섭(1988)의 "부모관심도 검사"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요인적재치가 높은 19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 1요인은 학업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6문항), 2요인은 학업성적에 대한 압력(5문항), 3요인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포부(4문항), 4요인은 학업성적을 위한 강화체제(4문항)로 각각 전체 변량의 27.8%, 10.4%, 6.1%, 5.3%를 설명하였고 Cronbach α

는 .76, .71, .65, .64였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는 Rohner(1980)가 개발하고 Hahn(1980)이 번역한 MARQ(Matern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MARQ는 어머니의 온정차원을 나타내는 수용/애정, 공격/적대, 무시/무관심, 미분화된 거부(6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24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1요인은 어머니의 수용(12문항), 2요인은 어머니의 거부(12문항)로 각각 전체 변량의 26.6%, 10.2%를 설명하며 어머니의 거부 문항은 역산하였고 Cronbach α 는 .86, .78이었다.

3) 자아평가 척도

자아평가 척도는 Rohner(1980)가 고안하고 Hahn(1980)이 번역한 PAQ(Person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의 자아평가 척도 12항목을 사용하였다.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1요인은 긍정적 자아평가(6문항), 2요인은 부정적 자아평가(6문항)로 각각 전체 변량의 31.5%, 12.2%를 설명하며 부정적 자아평가 문항은 역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 는 .75, .69였다.

4) 무력감 척도

무력감 척도는 손낙주와 최보가(1996)가 제작한 것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설명력을 낮추는 두개 문항을 제외한 3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1요인은 지속성 결여(10문항), 2요인은 수동성(7문항), 3요인은 자신감 결여(7문항), 4요인은 통제력 결여(6문항)로 각각 전체 변량의 25.1%, 6.6%, 5.3%, 4.8%를 설명하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83, .76, .71, .69이었고 학습된 무력감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와의 공인 타당도는 $\gamma = .70$ 이었다(손낙주와 최보가, 1996). 이

상의 척도들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IV. 결 과

1. 가설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사용된 15개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1>, 가설모형의 부합도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모형은 $\chi^2=431.97(df=80)$, $GFI=.88$, $AGFI=.81$, $RMR=.076$,

$NNFI=.82$, $NFI=.80$ 으로 대부분의 부합도 지수들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모형의 수정을 통해 대안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설모형에 대한 전체 표본집단의 구조행로계수 및 구조행로는 <표 3>, <그림 3>과 같다.

2. 대안모형의 탐색

가설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어머니의 수용과 아동의 긍정적 자아 평가간의 잔여변량이 서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theta_{\epsilon 75}$ 를 추가하였다. 이렇

<표 1>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X1	X2	X3
Y1	1.00														
Y2	.54	1.00													
Y3	.35	.50	1.00												
Y4	.52	.35	.23	1.00											
Y5	-.23	-.04	.15	-.03	1.00										
Y6	-.39	-.29	-.12	-.30	.42	1.00									
Y7	-.13	-.04	.17	-.05	.53	.16	1.00								
Y8	-.17	-.15	.01	-.15	.29	.39	.45	1.00							
Y9	.23	.21	.04	.17	-.26	-.39	-.38	-.55	1.00						
Y10	.23	.16	-.04	.17	-.37	-.35	-.52	-.53	.50	1.00					
Y11	.17	.14	.05	.11	-.21	-.21	-.30	-.39	.51	.48	1.00				
Y12	.28	.29	.20	.22	-.13	-.33	-.14	-.38	.55	.38	.42	1.00			
X1	-.06	-.13	.00	.06	.22	.10	.21	.14	-.10	-.22	-.09	-.15	1.00		
X2	-.07	-.15	-.03	.00	.15	.06	.17	.15	-.07	-.16	-.07	-.13	.69	1.00	
X3	-.10	-.17	-.05	-.02	.13	.07	.14	.10	-.11	-.13	-.08	-.12	.41	.48	1.00

Y1 : 학업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Y4 : 학업성적을 위한 강화체제

Y7 : 긍정적 자아평가

Y10 : 수동성

X1 : 어머니의 학력

Y2 : 학업성적에 대한 압력

Y5 : 어머니의 수용

Y8 : 부정적 자아평가

Y11 : 자신감 결여

X2 : 아버지의 학력

Y3 :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포부

Y6 : 어머니의 거부

Y9 : 지속성 결여

Y12 : 통제력 결여

X3 : 아버지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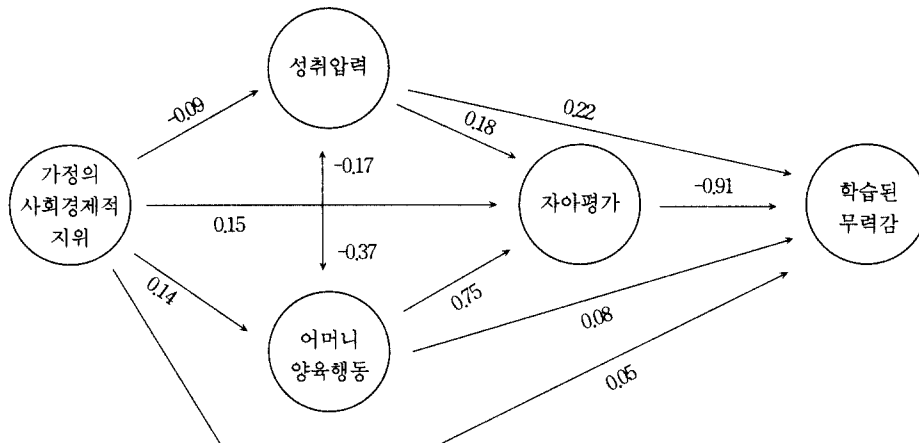
<표 2> 가설모형의 전반적 지수

부합도	χ^2	df	p	GFI	AGFI	RMR	NNFI	NFI
	431.97	80	.00	.88	.81	.076	.82	.80

<표 3> 가설모형의 구조행로계수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성취압력→양육행동)	-0.25	-0.37	-7.23*
β_{31} (성취압력→자아평가)	0.13	0.18	1.99
β_{41} (성취압력→무력감)	0.21	0.22	2.91*
β_{12} (양육행동→성취압력)	-0.25	-0.17	-7.23*
β_{32} (양육행동→자아평가)	0.78	0.75	5.97*
β_{42} (양육행동→무력감)	0.11	0.08	0.55
β_{43} (자아평가→무력감)	-1.11	-0.91	-5.95*
γ_{11} (사회경제적지위→성취압력)	-0.09	-0.09	-1.58
γ_{21} (사회경제적지위→양육행동)	0.10	0.14	2.27*
γ_{31} (사회경제적지위→자아평가)	0.12	0.15	2.43*
γ_{41} (사회경제적지위→무력감)	0.05	0.05	0.95

*(p<.05)



<그림 3> 가설모형의 구조행로

게 해서 생긴 것이 수정모형 1이며, 수정모형 1에서 자녀의 학업 성적에 대한 압력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포부의 오차변량들 사이의 상관성이 높아서 β_{32} 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 수정모형 2이다. 그리고 여러 행로들 t값이 가장 낮은 β_{41} 의 행로를 고정하여 만든 것이 수정 모형 3, β_{31} 의 행로를 고정한 것이 수정모형 4, β_{42} 의 행로를 고정한 것이 수정모형 5, γ_{21} 의 행로를 고정한 것이 수정모형 6으로 이들 모형들의 전반적인 부합도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 1, 2까지는

가설모형보다 부합도가 증가하였으며 수정모형 2, 3, 4, 5는 거의 동일하게 높은 부합도를 나타냈으나 수정모형 6의 부합도 지수는 $\chi^2=263.25$ (df=82), GFI=.93, AGFI=.89, RMR=.070, NNFI=.89, NFI=.90으로 수정모형 5에 비해 χ^2 값이 263, RMR이 0.03 증가하여 부합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정모형 5를 최종 대안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대안모형의 부합도는 $\chi^2=260.62$ (df=81), GFI=.93, AGFI=.89, RMR=.067, NNFI=.89, NFI=.90으로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안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결과

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안모형에 대한 전체 표본 집단의 구조행로계수 및 행로도형은 <표 5>, <그림 4>와 같으며 효과분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β_{21} , β_{41} , β_{12} , β_{32} , β_{43} , 그리고 γ_{31} 의 행로들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행로 외에 γ_{11} , γ_{21} 의 행로들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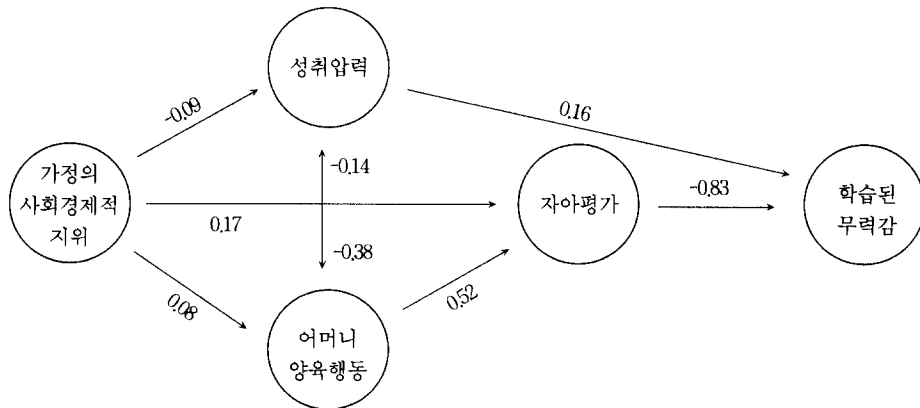
<표 4> 가설모형과 전체 수정모형들의 전반적 지수

부합도	χ^2	df	p	GFI	AGFI	RMR	NNFI	NFI
가설모형	431.97	80	.00	.88	.81	.076	.82	.80
수정모형 1	312.88	79	.00	.91	.87	.072	.87	.86
수정모형 2	259.31	78	.00	.93	.89	.067	.89	.89
수정모형 3	259.32	79	.00	.93	.89	.067	.89	.89
수정모형 4	259.38	80	.00	.93	.89	.067	.89	.90
수정모형 5	260.62	81	.00	.93	.89	.067	.89	.90

<표 5> 대안모형의 구조행로계수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성취압력→양육행동)	-0.23	-0.38	-7.27*
β_{41} (성취압력→무력감)	0.14	0.16	3.17*
β_{12} (양육행동→성취압력)	-0.23	-0.14	-7.27*
β_{32} (양육행동→자아평가)	0.51	0.52	7.51*
β_{43} (자아평가→무력감)	-1.25	-0.83	-9.44*
γ_{11} (사회경제적지위→성취압력)	-0.10	-0.09	-1.63
γ_{21} (사회경제적지위→양육행동)	0.05	0.08	1.50
γ_{31} (사회경제적지위→자아평가)	0.11	0.17	3.10*

*(p<.05)



<그림 4> 대안모형의 구조행로

〈표 6〉 대안모형의 효과 분석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성취압력→양육행동)	-0.23	-0.01	-0.24
β_{41} (성취압력→무력감)	0.14	0.17	0.31
β_{12} (양육행동→성취압력)	-0.23	-0.01	-0.24
β_{32} (양육행동→자아평가)	0.51	0.03	0.54
β_{43} (자아평가→무력감)	-1.25	x	-1.25
γ_{11} (사회경제적지위→성취압력)	-0.10	-0.02	-0.12
γ_{21} (사회경제적지위→양육행동)	0.05	0.03	0.08
γ_{31} (사회경제적지위→자아평가)	0.11	0.04	0.1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γ_{11} 과 γ_{21} 의 행로를 고정시킴으로써 부합도가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이들 행로를 고정시키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두었다.

따라서 대안모형의 구조행로는 〈그림 4〉와 같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평가에 영향을 미치나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의 성취압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나 아동의 자아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성취압력 및 아동의 자아평가에 영향을 미치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의 자아평가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이고 강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행로들에서 간접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지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평가를 통한 간접효과를 고려할 때 총효과가 좀 더 증가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인과관계의 구조는 부합도 검증 결과, 경험적 결과와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의 행로를 수정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

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성취압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관이 있고, 아동의 자아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의 자아평가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으로 강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성취, 포부수준이 높게 나타난 류연자(199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성취압력으로 가는 행로의 t값이 2이하로 아주 작은 값을 보임으로, 부적인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부모들이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여러 연구들(곽용, 1986; Rohner et al, 198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자아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

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인지, 성격,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조은미,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사이에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윤현선, 1984)와 일치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환경과 우울이 서로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남미숙, 1989; Lefkowitz et al, 1980)과 아동기의 우울성향은 물리적인 가정환경 및 부모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용수,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의 연구들에서 가정환경을 사회경제적 지위만 보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긴 차이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아동들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아동자신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 및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중범, 1995)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자녀가 거부로 지각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자아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김경옥, 1992; Driesler, 1993)과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정숙자, 1984) 및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고병채, 199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자아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나 교사들이 설정하고 있는 보상과 기대의 기준이 아동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고(탁경문, 1992),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며(류

연자, 1995) 우울, 불안 등을 유발시킨다(김중범, 1995)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흥미와 발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경우에 아동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압박감과 시험불안 및 학습된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애정과 긍정적인 훈육책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riesler, 1993) 이런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율, 성취를 강조하는 자율적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자아개념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성심과 이종승, 1982)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관심, 이해, 격려로써 수용하는 양육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어머니의 수용은 아동의 자아평가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거부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손낙주와 최보가(199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아동이 어머니의 거부보다 수용을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의 수용요인이 보이는 경로와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동의 자아평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사이에 자아평가 이외의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도록 연구설계를 한다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자아평가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으로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우울한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 자제력 결함 및 수행에 대한 더 낮은 기대를 가지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결과(Di Tosta, 1992)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성향을 좌우한다는 결과(심희옥, 1996) 및 아동의 자아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손낙주와 최보가, 1996)들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무력감을 중재하는 과정변인이며 따라서 학습된 무력감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Orbach & Hadas, 1982)를 지지한다. 이로써 아동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학습된 무력감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물리적 환경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심리적 과정환경인 부모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볼 때, 가정환경은 심리적 환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써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자아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에게 거부로 지각되고 부담이 되어 학습된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학습된 무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라기 보다는 아동의 자아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자아평가는 학습된 무력감에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환경과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사이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조사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내에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공변량 구조분석을 적용하여 도달한 결론으로서의 모델은 탐색적이지만 확인적 검증이라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화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동일한 연령의 다른 대상에게 반복 실시하여 교차 타당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더 나아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연구·개발하며, 동시에 아동으로 하여금 무기력에 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방안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고병채(1990). 자아개념, 귀인성향,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호관계 및 그 변인들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2) 곽용(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4)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5)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6) 김선례(1995). 학습된 무기력집단의 귀인유형과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성일(1993).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성격 발달. 정신건강연구. 한양대 정신건강 연구소, 12, 82-109.
 - 8) 김용수(1991). 아동기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종범(1995).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10) 남미숙(1989). 국민학교 학생의 가정환경, 우울, 및 학업성취.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11) 류연자(1995). 어머니의 학업 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12) 손낙주·최보가(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245-257.
 - 13)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14)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15) 신기명(1992). 학습무기력, 서울:배영사.
 - 16) 심희옥(1996).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 귀인양식과 매개 요인들.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4(4), 63-74.
 - 17)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특성의 관계. 연구노트,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11(1).
 - 18)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19) 윤영섭(1988). 학업성취도 결정변인에 관한 분석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20) 이남기(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유능감 간의 인과 관계. 효성카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 21) 정수자(1995). 가정변인과 학생변인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의 경로분석.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 22) 정숙자(1984).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23) 조은미(1992).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4) 탁경문(1991). 지각된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25) Abramson, L.Y., Garber, J., & Seligman, M.E.P.(1980).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An attributional analysis. In Garber, J., & Seligman, M.E.P.(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26) Aloyo, R.(1991). Perceived family of origin experience, learned helplessness, locus-of-control, and self-concept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27) Beecher, L.J.(1984).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in children : The effect of modeled attribution retraining and sex of child on task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28) Burhans, K.K. & Dweck, C.S.(1995). Helplessnes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Contingent Worth. Child Development, 1995, 66, 1719-1738.
 - 29) Crockenberg, S. B., & Litman, C.(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30) Di Tosto.(1992). Reformulated attribution 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The relation among attribution style, childhood depression and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ton Hall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MI.
 - 31) Donovan, W.L. & Leavitt, L.A.(1985). Stimulating conditions of learned helplessness: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attributions. University

- of Wisconsin, Waisman Ctr, Madison.
- 32) Driesler, K.J.(1993). Self-concept, locus-of-control, and the home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reading comprehension in eighth-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33) Homan, K.J.(1990). A Longitudinal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in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 34) Lefkowitz, M.M., & Tesiny, E.P.(1984). Rejection and Depression: Prospective and Contemporaneous Analys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776-785.
 - 35) Lefkowitz, M.M., & Tesiny, E.P.(1985). Depression in children: Preval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5), 647-656.
 - 36) Lefkowitz, M.M., Tesiny, E.P. & Gordon, N.H.(1980). Childhood depression, family incom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732-735.
 - 37) Orbach, Israel & Hadas, Ziva(1982). The elimin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deficits as a function of induced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 511-523.
 - 38) Rholes, W.S., Blackwell, J., Jordan, C., & Walters, C.(1980). A developmental study of learned helpless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16-624.
 - 39) Richman, A.L., Miller, P.M. & Levine, R.A. (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14-621.
 - 40) Rohner, R.P.(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41) Rohner, R.P., Hahn, B.C. & Rohner, E.C.(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 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42) Sakano(1989). 無氣力引つみ思案 緘黙日本東京黎明書房.
 - 43) Seligman, M.E.P.(1973). Fall into helplessness. *Psychology Today*, 43-48.
 - 44) Seligman, M.E.P., Maier, S.F. & Geer, J.H.(1968).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in the do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3, 256-262.
 - 45) Shaffer, D.R.(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3rd Ed.)*. California: Brooks/Cole.
 - 46) Symonds, P.M.(1939). *The psychology of parent child relationships*. NY Appleton-Century.
 - 47) Venard, M.L.(1993). Depression, Learned Helplessness, and Perception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Comparisons between Homeless and Hous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A.
 - 48) Winfield, A.H. & Rourke, J.A.(1991). Personality differences in responding to non-contingent reinforcement. University Adelaide, SA, Australia.